

壬寅年 함안 3선소 묘향 봉행



원복재 묘향



하림재 묘향



응암재 묘향

2022년 임인년 함안 3선소 묘향을 11월 4일(음, 10월 11일) 예년과 같이 재실에서 합사하여 봉행하였다. 이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 원복재에서 전서공 휘 열(悅) 이하 8위, 11시 하림재에서 시정공 휘 안(安) 이하 5위, 오후 1시 30분 응암재

에서 정절공 휘 여(旅) 이하 3위의 묘향을 봉행하였다.

임인년 집사분정

선소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	집례
원복재	在宇	民濟	權濟	東濟	鏞式
하림재	在宇	漢奎	貞濟	萬濟	鏞式
응암재	在宇	容來	在泰	萬濟	鏞式

묘향 헌성자

헌성자	헌금액	비고
性五	30만원	고문, 경남 김해
鏞岩	10만원	고문, 경남 창원
民濟	20만원	집의공파 종회장(함안)
洪來	50만원	고문(경기 의정부)
합계	110만원	

원 파 묘향 소식

내헌공(耐軒公) 묘향

내헌공과종회(종회장 松泉 趙鏞河)에서는 지난 10월 29일(음10월5일) 구미시 인동 소재 영모재(永慕齋)에서 조경호(趙儵浩, 濟) 종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묘향을 봉행했다.



집의공(執義公) 묘향

집의공과종회(종회장 龍潭 趙民濟)에서는 지난 11월 7일 함안군 함안면 소재 무진정(無盡亭) 옆 괴산재(槐産齋)에서 조봉래(趙鵬來) 종손 등 66명이 모여 執義公 휘 參과 이하 수대의 묘향을 봉행했다.

남계공(南溪公) 묘향

남계공과종회(종회장 守菴 趙鏞得)에서는 지난 11월 5일(음,10월 12)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소재 경모재(敬慕齋)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계공 휘 수만(壽萬)과 이하 수대의 묘향을 봉행했다.

덕곡공(德谷公) 묘향



덕곡공과종회(종회장 趙成濟)에서는 지난 11월 8일(음, 10월 15일)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소재하는 선영(先塋)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묘향을 봉행하였다.

이어서 유수재(律修齋)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덕곡유적정비 및 확충사업에 후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황석산성 순국선열 순의 제425주년 추모제향 거행

지난 9월 13일 11시 황암사(경남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989)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산성 순국선열 순의 제425주년 추모제향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진병수 함양군수, 아헌관에는 최정운 재경함양군 향우회장, 종헌관에는 곽현식 충열공 곽준 후손이 하였으며, 이날 우리 문중에서는 조용득(남계공과

종회장), 조현관(충의공대소헌과 종회장)와 다수가 참석하였다. 임진왜란시 왜구의 북진을 막고자 황석산성에서 장렬히 전사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우리 문중의 충의공 대소헌 조종도(趙宗道)께서 당시 함양군수로서 참전하여 전사하셨다.



추 모 제 향 거행

- 정정보도 -

대중회보 제79호 5면 6.1 지방선거 당선자 경축광고내용 중 「경산시의원」 조현일을 「경산시장」으로 정정보도합니다.

BRAND PORTFOLIO

LG WHISEN 시스템에어컨 LG whisen air

주식회사 대경공조

대표이사 趙在奉 (임판공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렵로 89(대경동)

TEL : (052) 766-9668 FAX : (052) 766-8744

H-P : 010-3629-1012

E-mail : ledk1656@hanmail.net

함안조씨 문적총관 <10>

무진정공(無盡亭公) 휘 삼(參)

- [8] 之興 - [9] 天啓 - [10] 悅 - [11] 安 -
- [12] 旅 - [13] 銅虎 - [14] 參

○ 금은공(琴隱公) 휘 열(悅)의 현손이며 어계선생(漁溪先生) 휘 여(旅)의 손자요, 진산공 동호(銅虎)의 셋째 아들로 성종 4년 계사(1473)에 출생하였다. 자(字)는 노숙(魯叔)이요, 호는 무진정(無盡亭)이다.

□ 행장(行狀)

성종 20년(1489) 17세에 진사(進士)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중종 2년(1507)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함양(咸陽), 창원(昌原), 대구(大邱), 성주(星州), 상주(尙州) 등의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를 역임하였고, 이어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겸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을 지낸 조선조 중기의 문신이다.

선생은 일찍이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그리고 『당감(唐鑑)』(당나라 역사책)을 보았는데, 이는 선생께서 예조좌랑으로 재직할 당시 중종(中宗)께서 공의 바른 학문을 아름답게 여겨 상으로 사하신 것이었다.

졸년은 미상이나 기일은 3월 12일이며, 묘소는 성산(城山)의 유좌(西坐)이다. 배(配)는 성산 이씨(星山李氏) 절도사 휘 거인(居仁)의 따님이다. 묘는 공과 쌍분이다.

○ 묘갈명과 서문(墓碣銘并序)

선생의 휘는 삼(參)이요, 자는 노숙(魯叔)이며, 호는 무진정(無盡亭)이니, 함안 조씨로, 고려 대장군 원윤(元尹) 휘 정(鼎)은 곧 그 시조이다. 벼슬이 대대로 빛나더니 고려 말에 공조전서(工曹典書) 휘 열(悅)은 동료 홍만은(洪晩隱) 재(載)와 이모은(李茅隱) 오(午) 등 제현과 함께 모여 삼가(三嘉)의 운구사(雲衢社)에서 나라 망함을 조상(弔喪)하고 슬프게 노래 읊으니, 사람들이 「맥수가(麥秀歌)」와 「채미가(採薇歌)」에 비유하게 된 이가 곧 선생의 고조이다.

중조 안(安)은 증 사복정(司僕正)이요, 조(祖) 휘 여(旅)는 곧 생육신(生六臣) 어계선생이니 숙종조(肅宗朝)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추증하고 서산사(西山祠)에 향사(享祀)를 명하였으며, 정조조(正祖朝)에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정절(貞節)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고(考) 휘 동호(銅虎)는 군수를 지내고 증직 이조참판을 받았다. 비(妣) 증 정부인 고성 이씨는 증 이조참판 증(增)의 따님이요, 좌의정 양헌공(襄憲公) 원(原)의 손녀이다.

선생이 성종 4년에 함안의 산팔리 원북동에서 태어나 성종 20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중종 2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을 두루 겪어 명성이 들어나고, 내직에는 사헌부(司憲府) 아장(亞長)에 오르고 외직에는 다섯 고을의 원님을 거쳐 목사(牧使)에 이르렀다. 사후 선생의 장지는 함안 성산(城山) 남쪽 산기슭 묘향(卯向)의 언덕이다.

아아! 선생이 돌아가신 후 수백여 년이나 되

는데, 거듭된 임진 계사의 병화는 함안이 더욱 심하여 선생의 묘소도 또한 화를 면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 나머지 사물은 어떠하였을까? 이로써 무릇 선생의 일생을 행하고 다스린 바를 그 만분의 일도 찾을 길이 없었으나, 다행히 『함주지』와 「무진정기(無盡亭記)」가 보존되어 병화에서 면한 것이 있으니 또한 찾을 곳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삼가 살펴 보건대 『함주지』에 이르기를 “공은 어려서 뜻을 독서에 전념하여 일찍이 책을 잠시도 걷어치우는 일이 없었으며, 시비(侍婢)가 아침 밥상을 드려도 공이 살피지 않으므로 한나절이 되어 시비가 드디어 밥상을 철거하고 점심때도 또한 이같이 하였으며, 해가 저물어서야 공이 비로소 문기를 ‘오늘은 때가 늦도록 아침 밥상을 올리지 아니하고 또 점심도 들이지 아니하니 심히 괴이한 일이다.’라고 하니 집 사람이 그 내력을 고하니, 공이 웃으며 이르기를 ‘내 과연 몰랐었네.’라고 하였으니, 마음을 오로지 학문에만 두고 조금도 다른 데 두지 아니 하였음이 이와 같았다.” 또 “관에 재직 중 청검(淸儉)하다는 칭예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참판 공의 아들 순(舜), 삼(參), 적(績)이 다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니 그 명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졌는데, 부모가 연만함으로 모두가 청하여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었으며, 다음 아들 건(騫)은 우후(虞侯)요, 막내 연(淵)은 재행(才行)이 있었고, 창(昌), 발(發) 또한 벼슬하여 공훈이 있었다. 참판공이 부인과 함께 집에 편안히 계함에 아들 7형제가 서로 잔을 올려 만수를 비니 그 즐거움 또한 화기에애하였다.”고 하였다.

무진정 기문에 대략 이르기를 “선생은 다섯 고을 원님을 두루 거친 후 먼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 고향에 돌아와 그 가운데 편안히 거처하면서 세속의 누를 벗어나 자유의 마음이 되어 청산(靑山)과 백운(白雲)으로 주연(酒宴)의 병풍 같이 삼고, 청풍명월로 손님 안내자를 삼아 증점(曾點)의 영귀(詠歸) 같은 풍류를 즐기고 도연명(陶淵明)의 시문 같은 시흥(詩興)을 펴면서 쓸쓸히 휘파람 지어 시를 읊조리고 고요한 가운데 그윽하고, 쓸쓸한 가운데 편안하고, 유유한 가운데 스스로 즐기면서 화락하게 지내셨다. 또 선생이 눈앞에 보이는 산을 가리켜 신후지(身後地)를 삼았으니, 능히 자신의 명(命)을 알았다. 능히 명을 알았기 때문에 능히 용퇴(勇退)하였고, 용퇴한 까닭에 이 낙을 가졌다.

정자의 경치도 무진하고 선생의 즐거움도 역시 무진하니 무진이 모여 무진정의 이름이 되고, 선생의 이름도 같이 무진정이라 한다.” 하였다.

아아! 슬프도다. 『함주지』는 한강 정구(鄭述) 선생이 지었고, 정자 기문(記文)은 신재 주세봉(周世鵬) 선생이 지었다.

두 선생은 유림(儒林)의 우두머리로서 그 형제의 뛰어난 학문에 힘쓴 공과, 부모에게 효도한 사실과, 벼슬살이 하면서 청렴결백한

에 힘쓴 공과, 부모에게 효도한 사실과, 벼슬살이 하면서 청렴결백한 지조를 볼 수 있었으며, 넓은 회포와 고풍(高風)과 기미를 살피 초연히 세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강산의 풍월 속에 안겼으며, 당쟁의 소란 중의 온전한 사람임을 또한 상상할 수 있다.

그런즉 후세에서 공을 알고자 하는 이는 『함주지』와 무진정 기문에서 구함이 또한 충분하다. 또한 어찌 반드시 많은 것이 필요하겠는가? 일찍이 그 가장(家藏)을 보니 『대학(大學)』, 『당감(唐鑑)』이 있는데, 실제로 중종이 공의 정학(正學)을 가상히 여겨 상으로 내린 것이다. 또 충재 권벌(權機) 선생의 교유록(交遊錄)을 보니 선생도 또한 함께 하였으니, 당시 임금에게 후대(厚待)를 높게 받고 스승과 친구를 사귀며 교제하고 서로 왕래가 많은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공의 배(配) 숙부인(淑夫人) 성산 이씨(星山李氏)는 절도사(節度使) 거인(居仁)의 따님이요, 판서 정무공(判書靖武公) 호성(好誠)의 손녀로, 묘소는 선생의 묘에 부장(附葬)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 정균(庭筠)은 현감(縣監)이요, 차남 정백(庭栢)은 예빈시(禮賓寺) 별제(別提)로 청송 언덕에 처음 이사하여 살았다. 딸은 삼형제로 큰딸은 침지(僉知) 이병(李珪)의 배요, 둘째는 내금(內禁) 신공헌(申公獻)의 배이며, 셋째는 생원(生員) 정의(鄭毅)의 배이다. 현감 정균(庭筠)은 아들 셋을 두니 물(勿)은 생원이요, 개(介)는 부사직(副司直)으로 출계(出系)하고, 근(斤)은 통덕랑(通德郎)이다. 별제의 양자는 개(介)요, 아들 덕방(德芳)이 있다. 생원이 2남을 두니 장남 준남(俊男)은 효자로 참봉에 천거되어 정유재란(丁酉再亂)에 화(禍)가 집의공 선생 묘에 미치지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파헤친 관을 흙으로 덮고 드디어 북향 사배(四拜)하고 자진하여 죽으니, 그 일을 조정에서 알고 정려(旌闕)의 건립을 명하였으며, 차남은 영남(英男)으로 호는 낙천(樂川)이다. 사직공의 양아들 준도(遵道)는 효행으로 주부(主簿) 벼슬에 천거되었으며 호를 방호(方壺)라 하였고, 참봉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계선(繼先)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인조 5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의주(義州) 전장에서 순절하니 조정에서 이를 알고 정려를 명하여 부자 쌍절각(父子雙節閣)이 세워졌다. 차남은 술선(述先)으로 호는 수암(守庵)이다. 주부의 아들 함일(咸一)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의 벼슬이 증직되었고,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명(銘)하노라.



무진정(無盡亭)

서산서원 壬寅年 국천제 및 정기총회 개최



국천제 봉행

2022년 10월 4일(음 9월9일) 중양절을 맞이하여 서산서원(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에서 임인년 국천제(菊薦祭)를 봉행하였다.

이날 우천에도 불구하고 경향각지 유림과 중원 70여명의 참석하였다. 초헌관에 허권수(許捲洙) 원장, 아헌관에 전병인(서울 全炳仁)



정기총회 광경

중헌관에 원유상(하남 元裕常), 축관은 이용섭(산청 李容燮), 집례는 이영유(산청 李永有) 등 5집사가 맡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제향을 마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022년도 결산서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고, 전 임원진 모두가 임기



백일장 시상광경

만료됨에 새 임원진을 선임 가결하였다. 또한 이날 「제 2회 생육신 선양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 시상식도 겸행하였으며, 경북 영주시 이창경(錦綱 李昌京) 유생이 장원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서산서원 신임 임원명단

직 급	성 명	주소	비고
이사장	조 양 규	함 안	
이 사	조 영 규	"	
이 사	조 권 제	"	
이 사	조 문 규	"	유임
이 사	조 현 판	부 산	
이 사	조 세 제	함 안	
이 사	남 상 순	창 원	유임
이 사	원 유 상	하 남	
이 사	항 진 원	함 안	
감 사	조 혁 래	함 안	유임
감 사	배 철 균	함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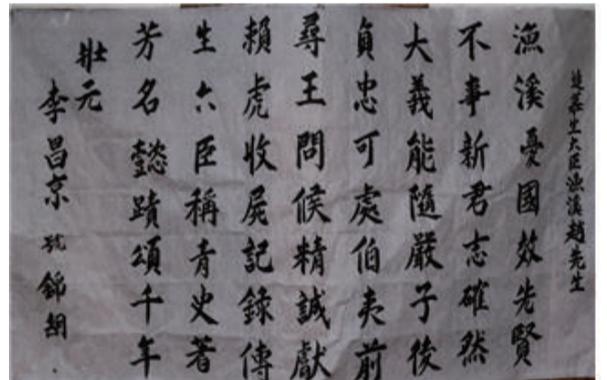
조소양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내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삼균주의의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독립운동가, 조소양(鏞殷, 참판공파) 선생을 기리는 '조소양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제'를 9월 29일(목)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

원 현충관에서 조소양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추모제는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각계 인사,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위원회 조승래 국회의원 추모사, 참석내빈의 추모사, 독립기념관 한시준 관장 추모강연, 추모공연, 유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소양선생 서거 64주기를 맞아 (사)조소양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이사장은 삼균학회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회장 이해영 변호사와 순국선열 호국사찰 세계불교일화종원담총무원장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조소양 선생의 숭고한 위업을 기리고, 조소양 선생 가문의 항일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해 갈 예정이라고 한다.

장 원 한 시



채미정기 제막식 거행



지난 6월 24일 11시 복사본 채미정 기문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30여명의 중원과 조근제(根濟, 53, 절도사공 후 도사공파) 함안군수와 함안군 의회 의원 조

용국(鏞局, 56, 절도사공 후 도사공파), 조만제(萬濟, 67, 집의공 후 승지공파)가 참석하여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채미정기는 어계(漁溪) 조려(趙旅) 선조의 9세손 관아재 휘 영석(榮祿) 공이 의령현감으로 부임한 해, 이곳을 찾아 사당에 배알하고 채미정기를 근서(謹書)하여 현판하였다.

도난과 훼손 우려로 2009년 7월 함안 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고 있었는데 많은 유적 탐방객들이 채미정기가 없음을 안타까워 해 오던 중 2021년 봄부터 판각작업을 하여 2021년 12월 12일 현판하고, 오늘에서야 제막할 수 있었다.

복사본 채미정기는 명인 최환갑이 각인, 제작하였다.

함안조씨 부산·대구·창원 지역 친선골프대회



예년과 같이 함안조씨 부산·대구·창원지역 친선골프대회(회장 조현은, 총무 조용국)가 지난 10월 14일 부산 통도 파인리스트 골프장에서 열렸다.

부산 14명, 대구 6명, 창원 4명 총 24명 6팀으로 예년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석하여 나름의 기량을 뽐냈으며 즐겁고 화목한 행사가 되었으며, 친족간의 돈독한 친목을 다졌다.

채미정 정비사업

지난 6월 27일 채미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채미정(菜薇亭)의 번와와 훼손 목재 교체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8월 31일 완료하였다.

군비 약 1억원을 들여 (주)한결문화재에서 2개월여 수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 탄생하였다.

이후에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다.』

조재구(在九, 62년생, 참관공파) 중원이 대구 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대한민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9월 2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민선 8기 전반전을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임·구성하였는데, 신임 대표회장 조재구 중원은 취임사를 통해 “군국의 신·군·구를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자치분권관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신임 대표회장은 대구 남구 의회 의장과 대구 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7·8기 대구 남구청장을 맡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

함안조씨 대구청년회 가족웃음한마당 행사

코로나19의 사회적 격리 시기와 마른장마 더위에 몸 건강 하신지요?

함안조씨 대구청년회에서는 2022년 7월 1일 대구 푸른방송국 아트홀에서 “제3회 가족과 함께하는 웃음한마당” 행사를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해 줌에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으며, 이 행사에 함안조씨 전국 청년연합회 순제 회장, 사무총장 용찬, 부산청년회장 원국, 부산화수회 사무총장 상래, 진주청년회 현충 회장이 멀리서 달려와 함께 축하해 주어 자리가 빛났다.



함안조씨 대구 청년회는 2018년 5월 1회를 시작하여 이 행사를 시작하여 왔으나 2019년 2회를 마친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열지 못하고 아쉬움을 더하면서 회원 서로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함안조씨 대구 청년회 밴드에는 36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대면 시기에 밴드내에서 회원 상호간의 관계를 이어오며 “막걸리 데이 사진 선정전” “함조오행시 경연대회” “폭염탈출전 행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하고 평가하여 시상을 하며 회원상호간의 관계를 이어져 왔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웃으며 버티어 왔다.

이번 “제3회 가족과 함께하는 웃음한마당” 행사에는 푸른방송국 (조강래, 래, 판결사공) 회장과 현수 대표가 흔쾌히 집안일에 방송국 아트홀을 무상으로 내어 주며 지원을 해주었고, 대구화수회 래진 회장을 비롯하여 전임회

장, 청년회 역대회장, 대구청풍회 만현 회장 등 많은 분의 지원과 그 외 많은 분들의 협조하여 진행하였으며, 모두가 만나서 반갑게 겨안고 안부를 물어 주고 서로간에 “너는 아직도 하나도 안늙었다. 안늙기는 주름 많이 생겼구만” 이런 대화가 오간다. 참 정겹다. 모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형제 아재는 아내, 딸, 사위와 티셔츠를 똑같은 것을 준비해 와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며, 함께 웃고, 어깨를 들썩이며 흥을내고 함께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마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치맥집을 통째로 빌려 맥주와 치킨으로 속을 달래며, 서로 술을 권하고 대화를 나누며 “다음에는 또 언제 모이냐” 란다

우리 행사를 준비한 집행부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

우리 함안조씨 대구 청년회는 대구화수회장님이하 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많은 사업을 벌려 만의장을 만들어 후손들 상호간에 상부상조 할수 있는 청년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지역간의 교류도 만들어 내 고자 노력합니다.

함안조씨 대구 청년회는 더욱 활기차게 나아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수회 회장, 전임회장, 임원님, 전임청년회장님 “함조사랑”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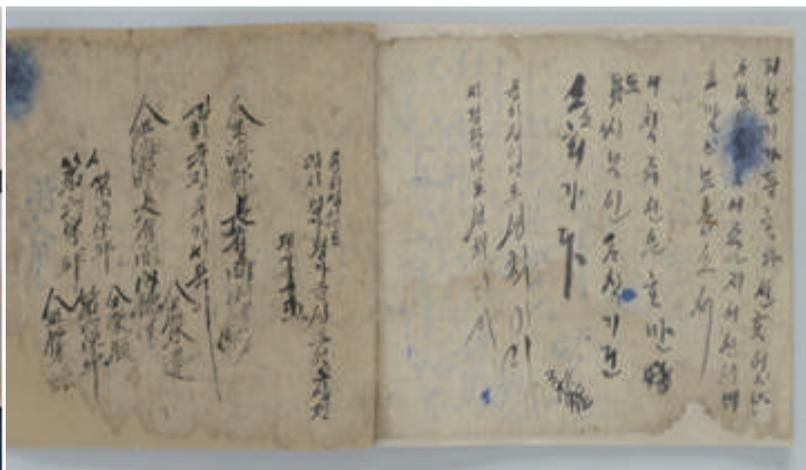
2022년 7월 4일

함안조씨 대구청년회원 일동

조순남 여사의 ‘내방가사’ 국가기록물로 등재



아들 김승태



아들 김승태의 독립운동을 상세기록한 조순남 여사의 「김승태 만세운동가」 일부.

조순남은 조희수(趙禧秀(植), 간송당공파)의 5녀로 김해김씨 집안의 김규환(金奎煥)과 결혼하여 김원수(元壽)와 김용수(龍壽, 일명 승태) 2남을 두었다.

장남은 조졸하고 차남 김승태(1878~1940)는 1919년 4월 12일 장유 무계리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 조순남 여사가 아들의 독립운동 면면을 상세히 기록한 「김승태 만

세운동가」가 최근에 국가기록물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조순남 내방가사 기념사업회」를 발족, 조순남을 독립운동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순남 내방가사는 102년 전 1919년 4월에 일어났던 장유의 만세운동에 관한것을 내방가사 형식에 맞추어 기록했다.

만세운동의 시작과 전개 과정까지 전모가 현장감 있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도의 제학공파 후손들 본향에 오다

지난 10월 15일 청도군에 사는 덕곡공 후제학공파 후손(회장, 조정오) 90여명이 버스 3대로 나누어 타고 본향을 방문했다.

우선 원복재와 조묘 및 서산서원과 채미정을 둘러보았는데 이날 조옥래 대총회장, 조권제 함안군수가 맞이해 주었다.

제학공파 후손들은 함양 덕곡공 유적을 탐방한 후 함안에 들렀는데, 대부분 함안 본향을 처음 찾아 왔다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東溪公 이후 427년 만에 경산시장으로 취임한 趙炫逸시장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경산시장으로 당선되어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조현일(趙炫逸 1965년 乙巳生) 시장은 함안조씨(威安趙氏) 31세손(顯)으로 내헌공파(耐軒公派) 파조이신 내헌공(耐軒公) 휘 연(諱淵)지하에 동계공(東溪公) 휘 형도(諱亨道)의 차자인 덕재공(德齋公) 휘 함희(諱威熙)의 14세손이다.

경산현령 지낸 동계공 이후 427년 만에 우리 함안조씨(威安趙氏)에게는 불모지(不毛地)나 다름이 없는 지역에서 동계공파 후손으로는 처음 경산시장에 취임하였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뜻깊은 일인가!

조현일 시장은 아버지 영래(英來)와 어머니 단양우씨(丹陽禹氏) 사이에 1남 3녀 중 셋째로 경산에서 태어나 대구 대륜고등학교, 계명대학교 생물학사, 영남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년 경상북도의원, 2018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신도시였던 경산 중산지구에 성암초등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관내 학교 시설투자를 비롯하여 학교 증축이나 교육인프라 개선 및 코로나 학습지원금 지급 등 교육 전반에 걸쳐 노력하면서 지역정 치권에서 활동해 왔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경산시장에 처음 도전해 53.87%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당당히 당선되었다.

한편 조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 행복을 시정 운영의 목표로 삼아 가족의 건강과 일상의 행복이 보장되는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경산 입향조는 시조로부터 25세손인 휘 경호(景祐) 선조께서 1820년경에 경산 압량면 의송동에 시거하였다. 경산군지(1971년 발행)에 보면 “정절공(貞節公) 어계(漁溪) 여(旅)의 17세손인 경호(景祐)가 처음 청송으로부터 압량면 의송동에 우거한 후 용순(鏞淳) 족보에는 용태(鏞台)이 잉거(仍居) 하였다”라 기록되어 있고, 경산 압량에 세거한 이래 제족(諸族)이 현달(顯達)하였는데 조부이신 원제(爰濟)는 19

08년생으로 압량면장(1948. 6. 11 ~ 1957. 7. 11)을 역임하였고, 백부(伯父) 경래(慶來)는 국정원서기관, 중부(仲父) 익수(益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사로 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부(父)는 영래(英來)로 하양·진량·압량면장, 숙부(叔父) 종래(鍾來)는 영남대학교 법학사로 대구은행부장으로, 계부(季父) 정래(正來)는 경북대학교 이학사로 능인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역대 경산지역은 경산, 자인, 하양현으로 구역되어 있는데, 세 지역의 관적(官蹟)(1595년~1910년간)에 등재된 우리 함안조씨는 경산현령으로 조형도(趙亨道)(청송 29세, 1595~1598년), 자인현령 조민식(趙敏植)(단양 53세, 1837년~1839년), 조원식(趙元植)(한성 27세, 1891~1893년), 하양현령 조성진(趙星鎭)(한성 33세, 1834~1839년) 4명에 불과하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경산시장으로 조용수(안동, 1992. 7. 3 ~ 11. 18) 시장이 유일하였다.

함안조씨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대대로 이어온 가풍을 이제는 조현일 시장이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 - 내헌공파 [趙政模(來)] -

운영협찬금 명단

(2022.6.21.~2022.11.25)

《임원회비》 (단위:천원)			
趙國濟	창원 마산 부회장	100	
趙顯峻	부산 수영 부회장	500	
趙官濟	서울 서초 부회장	200	
趙民濟	경남 함안 부회장	200	
《중회운영자금》 (단위:천원)			
趙林默	경북 안동 고문	100	
趙性纘	서울 강남 고문	300	
趙昌來	경북 청송 고문	120	
趙性五	경남 김해 고문	300	
趙鏞岩	창원 마산 고문	100	
趙洪來	경기 의정부 고문	500	
趙仁奎	울산 남구 자문위원	200	
趙局來	대구 수성 자문위원	200	
趙權濟	경남 함안 자문위원	300	
趙顯甲	경남 진주 자문위원	100	
趙漢奎	부산 해운대 자문의원	100	
趙鏞秀	창원 마산 자문위원	100	
趙鏞輔	창원 마산 자문위원	300	

趙忠憶	경북 문경	자문위원	200	조웅래	경남 통영	종원	50
조창래	창원 성산	종원	50	조명래	대구 달서	종원	50
조부선	강원 강릉	종원	50	조상래	(주소불명)	종원	50
조영록	서울 개포	종원	50	조상길	부산 연제	종원	50
조만수	부산 사하	종원	30	조선제	대구 남구	종원	50
조용갑	부산 수영	종원	50	조태제	경북 안동	종원	50
조제극	제주시	종원	200	조말규	대구 수성	종원	100
조철제	(주소불명)	종원	100	조강제	경남 진주	종원	50
조용해	경남 창원	종원	50	조춘래	대구 남구	종원	30
조형규	경남 함안	종원	50	조영래	경남 남해	종원	100
조재덕	부산 북구	종원	100	조정범	창원 마산	종원	100
(미상)	(불명)	종원	20	조석제	서울 서대문	종원	100
조기성	전남 광양	종원	20	조강광	일본	종원	200
조종규	경남 함안	종원	200	(성명미상, 주소 불명)			200
조용래	창원 마산	종원	100	조현태	경남 함안	종원	50
조무일	경남 통영	종원	40	조강래	대구 달서	종원	100
조명제	경북 영천	종원	50	조성래	경남 함안	종원	100
조순제	부산 연제	종원	50	조욱래	대구 수성	종원	100
조기제	부산 북구	종원	30	조형래	서울 강남	종원	100
조경일	대구 동구	종원	50	판결사공과총회(회장 趙相濟)			200
조인남	경남 거창	종원	50	판결사후 조암종중(회장 조탐래)			100
조재성	경남 의령	종원	100	남해청년회(회장 趙海珠)			100
				덕곡공후제학공과후손(회장조정오)			100

대중회는 종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임원회비·운영협찬 계좌번호 농협 177441-51-001861
중회보 협찬 함안조씨대중회

인물탐방

-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조인좌 -

일제강점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애국지사 일성 조인좌(趙仁佐, 본명 慶奎 忠의공 대소헌공파)에 대하여 경주시에서 2017년 12월 18일 황성공원 시립도서관 동편에 일성조인좌 선생 현창사업회(회장 김윤근 경주문화원장) 주관으로 세운 '기적비'가 있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그는 1919년 마산만세운동 때 선봉에서 활약했으며, 1926년 광복단에 입단하여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차에 1935년 무렵 경주에 정착하게 된다. 침술에 정통한 그는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는 민중을 구제할 방법을 궁리한 끝에 대덕당 한약방(부용당한약방의 전신)을 개원해 인술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수익금 상당액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송금했다.

이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애족장(1990년)에 추서 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전쟁 중에 고아원인 대자원(大慈園)을 설립해 수많은 전쟁고아들의 대부 역할을 했다. 또한 전통예술과 교육사업에도 뜻을 뒤 시립국악원, 경주서도학원, 경주기술고등학교를 설립했다.

광복회 대구경북회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조국광복과 경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해 헌신하다 1988년 12월 26일 타계했다.

조인좌 선생의 삶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록으로 "내가 걸어온 처신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있건, 칭찬의 소리가 있건 그것은 어느쪽이든 지금의 나에게 모두가 고맙고 송구스러울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경주를 사랑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맙고 송구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인좌 선생의 훌륭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려 민족정기 함양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고, 지역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 확산 등 온정 넘치는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유적 3개소 함안 9경에 선정되다.



무진정의 사계(가을)



합강정 반구정의 해돋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탐방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함안 9경」에 본문의 유적 3개소가 2경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9경은 ▲말이산 고분군 ▲악양의 꽃 길과 노을 입곡군립공원의 단풍 ▲무진정의 사계 ▲연꽃테마파크의 아라홍련 ▲강나루생태공원의 청보리 ▲장춘사의 산

사풍경 ▲합강정과 반구정의 해돋이 ▲대평늪의 늪지식물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9경은 함안군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권제 서산서당 원장 함안향교 전교 취임

2022년 10월10일 함안향교 충효관에서 함안군수와 군의회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권제(權濟, 집의공파 후)서산서당 원장이 함안향교 제38대 전교(典校)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총무장직은 조노제(桃溪 趙盧濟, 집의공 후 승지공파) 대종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이날 하객으로는 조성래 대종회 대표고문, 조성훈 서산서원 원장, 조양규 서산서원 차기 회장, 조성삼 서산서원 사무국장, 조민제 감사, 조석제(집의공파), 조용만 대종회 책임유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교육계에 헌신하고 교장직으로 퇴임한 후 대종회 감사와 서산서원 감사를 역임하고 현 서산서당을 관장하고 있는 趙 전교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성격으로 전형적인 교육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 3일 칠원향교 전교에 취임한 조민제(民濟, 집의공 후) 대종회 감사와 더불어 함안의 두 향교를 본 문(門)의 후손이 관장하게 되었다.

영천 시립박물관 제1호 유물기증자가 된 조특래 자문위원



유물기증식 (최기문 영천시장과 유물기증대리인 정향숙씨)

조특래(特來, 40년생, 耐軒公 후 芝岳公파) 자문위원이 경북 영천 시립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유물을 기증, 제1호 기증자가 되었다.

지난 8월 23일 조특래(대구시 수성구) 기증자는 영천 영일 정씨 가문의 19세기 생활상, 대소사에 관한 고문서 2건 25점을 무상으로 기증했는데 이날 유물기증식에는 기증자의



외척인 정향숙씨(영천시 신녕면사무소 민원담당)가 대리 참석했으며, 기증된 문서인 제만서합집(祭挽書合集) 필사본과 간찰(簡札)은 기증자의 외가로부터 전해진 소중한 유물들로 「19세기 영천에서 활동한 영일정씨 양반들과 지역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먼저 제1호로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조특래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드리고 기증 물품은 향후 건립될 시립박물관의 전시자료와 학술, 교육의 연구 자료 및 천의 역사로 기록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영천시는 2018년부터 도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제 · 인래 부자 방역물품 기탁



함안군 대산면에 거주하는 조원제·인래(내헌공 후 두암공파) 부자가 지난 8월 9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소독제 1만3900개, 마스크 2만200개를 함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조원제, 조인래씨가 참석했으며, 기탁된 물품은 저소득 계층 4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6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억제 자문위원 창원향교 장의에 임명

조억제(億濟, 55, 사인공파) 대종회 자문위원이 2022년 2월 22일 창원향교 장의로 임명되었다.

조 장의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는 대종회 홈페이지 관리분과위원으로 대종회 홍보 부문에 헌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방송대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종회 전회장 함안향교 추계석전대제의 초헌관에 천거

함안향교 典校(靑玖 李圭日) 추계석전대제가 지난 9월 28일 10시에 거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으로 조성래(洙泉 趙聖來, 내헌공 후 도암공파) 대종회 대표고문이 천거되어 봉향하였다.

석전제(釋奠祭)는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함안향교에서는 양력 9월 28일을 정일(定日)로 모셔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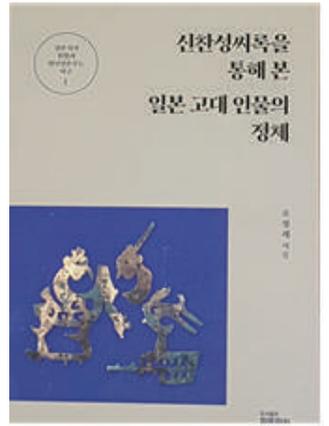
조정래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신찬성씨록을 통해 본 일본 고대 인물의 정체》

펴내 ~~~~~

- 일본 고대 서적 연구로 임나일본부설의 허구 밝힌 학술서
- 강단 역사학자, 유사 역사학자

모두 엄두 못 냈던 성과 이뤄



조정래(48세, 대소헌공파) 함안군 가야사 담당관이 《일본서기》의 천황과 임나일본부는 허구임을 밝히는 시리즈 중 첫 권인 《신찬성씨록을 통해 본 일본 고대 인물의 정체》를 출간했다.

《신찬성씨록》은 815년 일본에서 발간된 책으로 《고사기》, 《일본서기》, 《풍토기》 《구사기》 등에 등장하는 일본의 고대 인물에 대한 성씨를 정리한 책이다. A라는 성씨의 시조가 B라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1182개의 성씨에 대해 시조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성씨들은 황별(皇別)과 신별(神別), 제번(諸蕃)의 3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황별은 천황과 천황의 아들, 후예를 시조로 하는 성씨이고 신별은 천신(天神)과 그 후예인 천손(天孫), 땅에 있는 신을 의미하는 지기(地祇)를 적은 성씨이다. 제번은 한(漢)나라와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에서 온 성씨이다.

이 체계는 일본이 천황이 있는 중심 국가이고 한(漢)나라와 백제, 고구려, 신라, 임나가 일본에 공물을 바치는 나라라는 의미다. 《일본서기》를 보면 실제로 한반도가 일본에 종속된 것처럼 적고 있으며 그래서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 씨는 《신찬성씨록》을 세밀히 분석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40명의 천황과 임나일본부가 모두 허구임을 밝혀냈다.

조 씨가 적용한 방법론은 단순명쾌했다. 천황을 비롯해 일본 고대사에 등장하는 중요 인

물들이 모두 성씨가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인데 한사람이 여러 성씨의 시조는 될 수 있어도 한 성씨의 시조가 여러 사람일 수는 없다는 자명한 원리를 적용했다.

가령 C라는 성씨가 황별에도 있고 제번에도 있다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다를지라도 한 성씨의 시조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별로 분류된 시조 D와 제번으로 분류된 시조 E가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서기》나 《고사기》 내에서도 F의 시조 G라는 인물이 기원전에 나오고 다시 F의 시조 H라는 인물이 3세기 또는 5세기에 나온다면 같은 성씨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도 G와 H도 동일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밝혀낸 사실이 첫째, 천황 등 일본 고대 역사 서적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후대인에 의해 가공된 가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면밀한 검토와 연구의 결과로서 이론 성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일본서기》 등은 위서(僞書)라는 전제를 두고 나온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구체적 논증으로 이룩한 것이어서 정말 값지다.

둘째, 실존이 인정되는 일본 고대 인물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근초고왕을 비롯한 백제계 왕가라는 것이다.

일본 천황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반도의 왕이 왜를 지배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해낸 것이다. 저자는 이

번 첫 권에 이어 제2권 《일본서기 신대기와 신공황후 신라 정벌의 본질》, 제3권 《일본서기 해석을 통해 본 임나일본부의 허구》를 조만간 출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서기》의 천황이라는 허구의 체제와 임나일본부설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조 씨는 1964년 군북면 하림리에서 출생했으며 1977년 지금은 폐교된 하림초등학교, 1983년 군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1년 1월 군북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산인면, 가야읍, 행정과, 주민복지과 등에 근무했으며 특히 문화관광과 홍보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환경과장 보임 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야사담당관을 역임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1995년 함안문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그해 장편 시 '출발'을 함안문학에 발표했다. 전국 최대의 고분군을 남긴 아라에 관한 책을 찾아 전전하다 직접 소설을 쓰기로 결심해 잊혀간 왕국 아라에 대한 시리즈를 쓰고 있으며 1권 《사라진 뱃사공》부터 6권 《녹나무관의 비밀》까지가 나와 있다. 이와 별도로 아라홍련에 대한 소개와 함안의 별칭인 금라에 관한 이야기로 고려시대 주영찬의 딸이 아라홍련의 기운을 받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왕비가 되는 과정을 그린 《칠지도 아라홍련을 품다》가 나와 있다.

향후 잊혀간 왕국 아라 시리즈의 제7권 《죽음이 비치는 강물》도 출간될 예정이다. - 도서출판 피플파워. 35,000원

조주영 장관 손녀 충의공 대소헌공파 족보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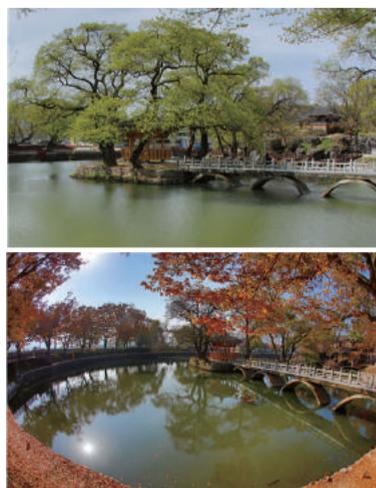


조주영(趙柱泳, 1900년생, 남해, 대소헌공파) 손녀 조혜영이 지난 10월 초 충의공 족보 14편 8권 2질을 기증했다.

조주영은 남해 출신으로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해 오다가 남해군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체신부 장관을 거쳐 국무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1976년 작고하셨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손녀 조혜영이 충의공의 족보를 기증할 의사를 전해 왔고 이를 기증 받아 대중회의 주요한 유산으로 보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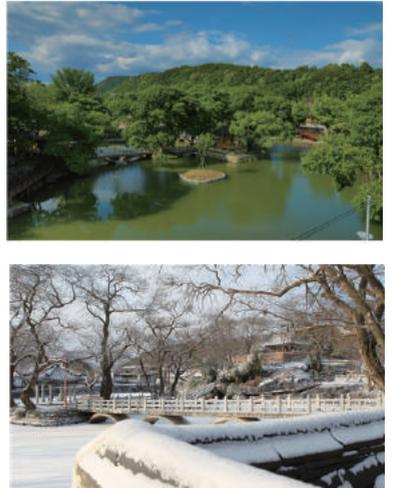
무진정의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식회사 대 천

설립 1970년 1월 일
 본사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 14길 16-1
 전화 : (053) 311 - 5151
 FAX : (053) 341 - 5256
 메일 : daechun01@daum.net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 메트로디오빌 1006호
 전화 : (02) 6247-5252
 부산사무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3로26 센텀스퀘어 1518호
 전화 : (051) 928-5252
 = 취 급 품 목 =
 용 제 류 ▶ BTX, MEK, IPA, MIBK, EA, 메탄올 등
 무기화학 ▶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염산, 요소등
 합성수지 ▶ PVC, PE, PP, 가소제등



회장 조용래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하수기술진단 GETEC

www.getec21.com

Globe Environment TEC Co., Ltd.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27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30호
- 기계설비공사업 대구시 달서구 제2009-10-5호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업 대구 지방환경청 제5호
- 기술개발연구소 제2009310358호

- 미세먼지 저감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유지관리
- 해외 환경오염처리시설 공사 및 기자재 수출
- 신/학/연 공동 환경기술 개발
- 정부 인증 기술개발연구소 보유
- 각종 환경 관련 기술컨설팅(인허가)

회사연혁

2022~2020

- 2022 10 제11회 대평 남중현 발명문화대상 수상
- 02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신지식인 선정(국회의원 표창)
- 2021 03 우수조달제품 지정(조달청)
- 2020 04 대구 지역스타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9~2010

- 2019 08 성능인증 획득(중소벤처기업부)
- 2018 09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 표창(행정안전부)
- 2017 10 녹색기술인증 획득(환경부)
- 2016 07 대구시 Pre-스타기업 선정(대구광역시)

2009~2001

- 2009 09 (주)지이테크 기술개발연구소 설립(인정번호 제 2009310358호)
- 2008 04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 한국염색기술연구소와 환경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베트남)
- 2007 12 베트남 하노이 대표사무소 설립
- 2001 05 (주)지이테크 설립

주요사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컨설팅

보유기술



수상



조 윤 현 (내현 / 신당.현)

(주)지이테크
GETEC
 문의 전화 053-957-4512

| 한국본사 GETEC Co., Ltd.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6길 63(국가물산업클러스터)
 Tel. 053-957-4512 Fax. 053-956-4640 E-mail. eng@getec21.com
| 모로코 지사 Top service electronic s.a.r.l |
 Tel. 212-5-2252-5403 Fax. 212-5-2252-5877
 Mobile. 212-661108735 (El HAZOULI Hamza) E-mail. elhazouli@gmail.com

| 기술개발연구소·기술진단 |
 Tel. 053-269-5718 Fax. 053-956-4640
 E-mail. rnd@getec21.com
| 베트남 지사 GETEC Vietnam Co., Ltd. |
 Tel. 84-4-6281-6123 Fax. 84-4-3556-9652
 Tex code. 0104381455